펫 메스니의 음악연구와 즉흥연주의 분석

황형윤*,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 telecaster52@hanmail.net
**e-mail : entheos@korea.com

The study of Pat Metheny's music and improvisation analysis

Hyung-Yun Hwang*, Tae-Seon Cho**
*Choongwoon graduate school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재즈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팻 메스니는 재즈분야에 있어 상업적 및 음악적으로 성공을 거둔 죄고의 뮤지션 중에 한 사람이다.

본 논문은 그의 음악과 임프로비제이션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음악적 아이디어와 특징을 알아보고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1. 서 론

재즈는 미국의 노예제도를 배경으로 하여 노예 신분이었던 미국의 흑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음악이다 재즈는 미국의 흑인에게서 비롯된 음악이므로 아프리카의 음악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에 흐르는 감정과 가치관은 그들만의 특유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백인의 사회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백인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으리라는 것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즉 재즈는 흑인적인 요소와 백인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태어난 새로운 방향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재즈가 전문 음악가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주되기 시작한 시기는 20세기에 들어서서 뉴올리안즈(new orleans) 에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그 이전에는 노예들 사이에서 넓게 퍼져 불려지면 백인들이 배워 부르기도 하였으며, 음악적인 형태는 대개 단순한 가창곡이었다. 예를 들면 흑인 영가 (negro spiritual과 gospelsong), 블루스 (blues), 그리고 노동요(worksong)등이 있으며, 이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음악형식과 감정표현이 내포되어 있어서 좋은 곡들은 후에 재즈 음악가들에 의해서 다시 불리워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도 하였다.

약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재즈는 오늘날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서양 예술 음악사의 현대 음악편에 클래식 음악과 나란히 연구되고 있다. 또한 스트라빈스키, 힌데미트 같은 이들은 재즈의 기법을 자신의 작품에 반영시킴으로써 클래식 세계에 재즈를 도입하였고, 재즈 음악가들 역시 클래식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두 세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서양에서는 재즈를 초,중,고 교과서에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자기나라의 민속음악이라고 칭해지면서 그 진가를 높이 평하고 있다. 다른 음악과 마찬가지로 째즈 역시 앞세대의 연주자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거기에 자기만의 스타일이 더해져 또 다른 음악과 스타일이 만들어진다.

원래 째즈 음악에서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았으나 앰프제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서서히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웨스 몽고메리 이후 기타는 솔로악기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펫 메스니의 즉흥연주(improvisation) 부분에 맞춰서 그가 즉흥연주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패턴, 아이디어 및 스케일 어프로치 등을 분석해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의 즉흥연주를 이해하고 응용하며 시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론

-펫 메스니의 즉흥연주 선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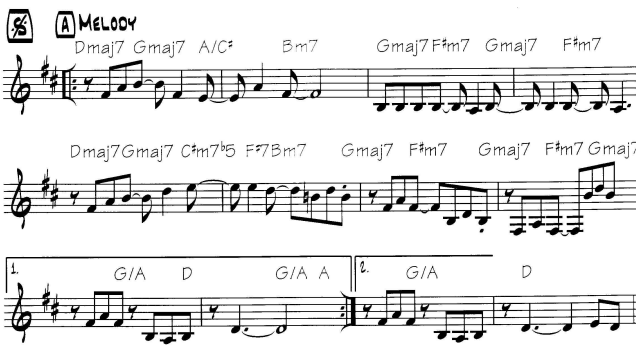
펫 메스니가 즉흥연주를 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아이디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몇가지 부분들로 분류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2.1 펜타토닉 스케일(블루스 스케일)을 사용한 경우

펜타토닉/블루스 스케일은 대부분의 뮤지션들이 즐겨 사용하는 스케일이며 펫 메스니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곡의 테마(theme)에서 사용된 경우를 보겠다.
악보1는 "Offramp"앨범의 James란 곡이다.
D 메이져 키(major key)이고【A】부분이 D Major Pentatonic Scale을 사용해서 작곡하였다.

2.2 코드 톤(chord tone)과 트라이어드(triad)를 사용한 경우

펜타토닉/블루스 스케일과 함께 즉흥 연주시 자주 사용되는 아이디어중 하나가 코드톤과 트라이어드를 사용한 어프로치인데 이번엔 펫 메시니가 코드톤과 트라이어드를 즉흥연주를 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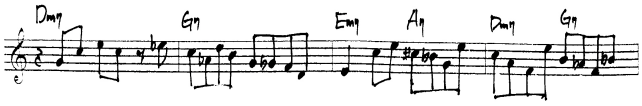
[그림 1]

그림1은 "80/81" 앨범의 Blues 곡인 Turnaround의 솔로 두 번째 코러스의 마지막 4마디이다.

처음 Dm7코드에서는 C 트라이어드를 사용하였는데 C코드의 C음은 Dm7의 b7th이며, E음은 Dm7의 9th 텐션, G음은 Dm7의 11th가 된다, 즉 업퍼 스트럭쳐 트라이어드를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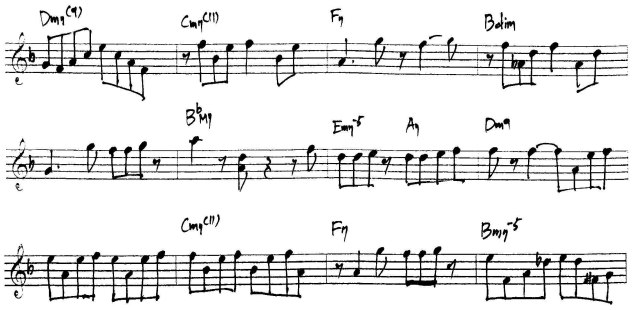
두 번째 마디의 G7코드에서는 G Traid로 가기전에 Ab Traid를 사용해 패싱코드(Passing Chord)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마지막 마디의 Dm7과G7에서는 Dm7의 대리코드인 FM7코드톤과 E Major Traid, Bb Traid를 사용하였고, G7코드에서의 E와 Bb 트라이어드는 Diminished Scale에서 파생된 트라이어드로써 b9th, #9th, 13th, 텐션이 포함되었다.



[그림 2]

그림2는 라이브 DVD인 "Speaking Of Now"에 수록되있는 스탠다드 보사노바 곡인 How Insensitive이며 테마의 16번째 마디부터 27번째 마디까지의 9마디부분이며 첫 마디부터 살펴보면 Dm7코드에서 대리코드인 FM7의 코드톤으로 연주되었고, 두 번째마디의 Cm7코드에서는 Cm7(11)의 코드톤을 연주하였다.
4번째 마디의 Bdim에서는 Bdim7의 코드톤을 사용하였고, 8-9번째 마디의 Dm7에서는 Dm7(9)의 코드톤으로 연주되었다.
마지막 12번째 마디에서는 Bm7b5코드에서는 FM7#5로 연주되었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Bm7b5코드가 멜로딕 마이너(Melodic Minor)의 Diatonic Chord Scale에서 VIm7-5로 볼 경우 Tonic은 DmM7이다.
그리고 D Melodic Minor의 Diatonic Chord Scale을 살펴보면
DmM7-Em7-FM7#5-G7-A7-Bm7b5-C#m7b5라서 Bm7b5코드에서 ⅢM7#5인 FM7#5의 코드톤으로 연주가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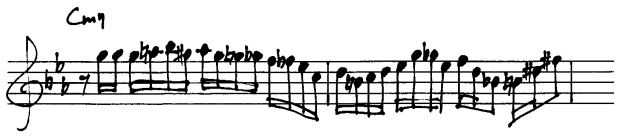
[그림 3]

2.3 크로매틱 어프로치(chromatic approach)를 사용한 경우

그림4는 Letter From Home앨범의 Have you Heard의 솔로 첫 번째 코러스의 23-24번째 마디의 두 마디 부분이다.

Cm7코드에서 C Blues Scale을 기반으로 팻 메시니 특유의 크로매틱 어프로치를 볼 수 있는데 악보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마디는 C Blues Scale의 구성음인 G음과 Bb음, G음과 Eb음 사이를 크로매틱으로 연결했다.

두 번째 마디에서는 C Blues Scale을 Half Step Below Approach로 연주하면서 Bb Major Traid로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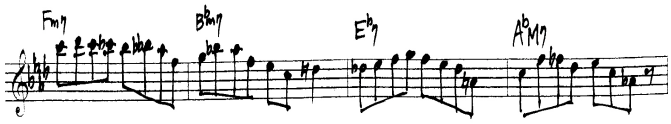
[그림 4]

그림5는 "Question&Answer"앨범의 스탠다드 곡인 All The Thing You Are의 두 번째 솔로 코러스의 25번째 마디부터 28번째 마디의 부분이다.

첫 번째 마디를 먼저 보면 주어진 코드는 Fm7이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 Fm7코드의 5th인 C음에서 b3th인 Ab음까지 크로매틱 어프로치 연결되고 있다.

악보의 마지막 마디인 AbM7코드 부분에서는 6th음인 F음에서부터 5th음인 Eb음까지 크로매틱 어프로치로 연결되었으며, 이 부분 역시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Db음이 중간에 걸쳐서 연결됨으로 팻 메시니 특유의 어프로치를 볼 수 있다.

프레이즈의 마지막은 코드톤으로 마무리 지어 tonic으로 돌아오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었다.



[그림 5]

3. 결론

33번의 그래미상 노미네이트와 17번 수상 및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는 펫 메스니 그룹으로 7년 연속 수상, 그리고 34장의 음반을 2000만장 이상을 판매한 점만으로도 그가 어떤 뮤지션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없었던 그의 새로운 사운드는 현대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그의 등장이후 "컨템포러리 째즈(contemporary jazz)"라는 용어가 유행되기 시작했다.

약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째즈는 루이 암스트롱, 찰리 파커, 마일스 데이비스, 존 콜트레인 등 몇몇의 뛰어난 뮤지션들에 의해 한 단계씩 발전해 왔다. 다른 장르의 음악과 마찬가지로 째즈 역시 앞세대의 음악을 듣고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을 해왔으며, 향후 째즈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써 인정받게 될 그의 음악은 현재의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째즈가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비밥, 컨트리 뮤직, 프리째즈, 라틴음악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만의 음악을 표현 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음악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진정한 음악의 개척자임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1] pat metheny song book hal leonard
[2] 남무성 jazz it up 고려원북스
[3] mark c.gridly 재즈총론 삼호뮤직
[4] richard niles the pat metheny interviews hal leonard
[5] joe barth voices in jazz guitar mel bay publications
[6] 2001/3 guitar player(美 월간지)